

국내 거주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 형성과 변화 연구*

김영술 (전남대학교 연구교수)

논문요약

이 연구는 국내 거주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 형성과 변화에 대한 것으로 정체성을 정치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체제의 맥락과 중국과 조선족, 한국 간의 관계에 접근해서 고찰하였다. 국내 거주 조선족의 정체성은 개인과 사회, 국가 등 다양한 관계와 맥락 및 정책 등을 통해 인식되고 형성되고 있다.

관계에 따른 조선족의 정체성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맥락에 따른 국내 거주 조선족이 보인 정체성은 정치적으로는 이중 정체성, 문화적으로는 젊은 층에서 혈통-민족 등 정치적 정체성에서 문화적 정체성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이데올로기 체제 맥락에서 조선족 정체성은 한국 정치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사회주의 체제가 민족 정체성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는 볼 수 없었다.

결국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 이데올로기, 정치·경제적이며 사회·문화적인 측면보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행태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정체성 형성과 변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조선족이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서 우리와는 다른 차이와 다양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는 그들을 수용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새로운 관계의 인식틀을 만들어 가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주제어: 조선족, 외국국적동포, 민족 정체성, 국가 정체성, 차별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80 27378).

I. 서론

1. 문제 제기

한국 사회는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의 인구수가 2019년 8월 말 기준 약 90만 명에 도달하면서 이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¹⁾ 이제 한국 거주 외국국적동포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는 한민족으로서, 동시에 거주국의 국민으로 위치를 가지고 있기에 그들이 가진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특히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는 민족 정체성 구축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 보면 더욱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1세기 현시대의 민족 생존과 다가오는 통일 한국으로 가는 길에 해외 한민족의 역할은 민족통합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나아갈 때 비로소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는 외국국적동포 중에서 민족과 국가 정체성이 현재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온 국내의 조선족은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구소련 국가의 고려인들과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온 국내의 미국·캐나다 등 북미 한인 간에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 사회가 고려인이나 북미 한인에 비해 조선족에게 훨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편이다. 실제로 한국 사회의 조선족에 대한 인식은 정치적 측면에서 민족 동질감에서의 이중 정체성,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익만을 추구, 사회적인 측면에서 강력 범죄사건, 한국에서 생활하는 과정의 태도나 행태 등 여러 면에서 부정적이다.

또한 조선족은 중국의 사회주의 교육이념과 시스템을 통해 교육된 삶과 의

1)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8월 31일 기준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는 883,099명으로 중국이 726,72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미국 45,427명, 우즈베키스탄 35,877명, 러시아 27,493명, 캐나다 16,056명, 카자흐스탄 14,140명 순이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2019년 8월호, p. 35. 국내 거주 조선족은 귀화 조선족 14만 명까지 합하면 약 87만 명에 이르고 있다.

식이 사회주의 체제 중국의 이념과 이에 근거한 정책에 지배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그들의 정체성 또한 사회주의 중국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왔으며, 나아가 조선족을 둘러싼 생존 및 발전의 조건이 우리의 그것과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은 사회주의 중국이라는 지배환경과 이의 통치이념에 종속되었고, 여기서 민족에 대한 정책은 중국이 허용하는 선에서 유지, 발전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족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때는 민족성, 또 한때는 계급성을 강조하면서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²⁾

그러면 조선족이 한국 사회 적응과정에서 보인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 이데올로기, 정치·경제적이며 사회·문화적인 측면 등에서의 부정적 이미지가 특별히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이다. 또한 조선족은 누구이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그동안 국내 조선족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선족은 이주 경험을 통해 나타난 차별과 배제 때문에 한국 사회 내에서 중국 국적을 보유한 조선족으로 살아가고 싶은 경향성을 드러내며 정체성에 새로운 변화의 양상 또는 정체성 재구성의 행태를 보인다고 하였다.³⁾ 다시 말하면, 조선족은 중국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동시에 중국의 조선족으로서의 이중 정체성을 형성하여 왔지만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의 이중적인 정체성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결국 중국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한민족으로서의 이중 정체성이 명확하게 구분되게 되었다는 것이다.⁴⁾

다른 연구자들은 조선족의 정체성을 제3의 정체성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2) 최승현, “조선족 정체성의 다름과 선택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제80권, 2016, pp. 112-118.
 3) 이미화, “한국 거주 조선족의 가치지향성과 정주의식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2017, p. 127; 박경화·박금혜, “민족과 국민 사이: 조선족의 초국가적 이동과 민족 정체성의 갈등.” 『한국학연구』 제39권, 2015, pp. 479-481.
 4) 고지영, “중국 조선족 정체성 변화 분석.” 전남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pp. 75-76; 김매화, “중국 동포의 이중 정체성에 관한 비교 연구: 다문화국가,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인하대 다문화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p. 56.

있다. 조선족이 한국 문화 적응과정 중의 민족 정체성이 주류사회와의 부딪침 속에서 일부는 한국인, 일부는 중국 조선족, 일부는 한국인도 중국인도 아닌 정체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주장이다.⁵⁾ 제3의 독립정체성으로는 조선족만의 독특한 민족문화 및 민족적 긍지감을 들었다.

조선족은 태생적으로 이중적 혹은 복합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에게 한 대상에 대한 선택이 결코 기타 대상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글로벌 사회에서 개인은 다중정체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중정체성에서 각 대상에 대한 정체성의 범위와 그 깊이는 인식 주체가 처한 당시의 시대적 조건과 행위자의 기대이익에 의해 결정된다. 행위자에게 있어 선택은 매우 곤욕스럽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재한조선족이 보여주는 정체성의 혼란은 과정민족을 넘어 디아스포라로 나아가는 탈피의 과정으로 이해하기도 한다.⁶⁾

연구자들은 조선족의 이러한 정체성 변화를 상황에 따른 역동적 생존 전략⁷⁾이나 문화적 충돌을 극복, 또는 차별을 상대화하며 자신을 중국 조선족으로 의미화하는 정체성 전략⁸⁾으로 보기도 한다. 이는 조선족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할 때 적합한 정체성을 강조하는 등 전략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러한 정체성 전략을 통해 조선족은 한족보다는 뛰어난 조선족, 동남아시아 이주노동자에 비해서는 동포로서 같은 민족으로서는 중국 조선족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한다. 즉, 한국 거주 조선족은 한국 사회의 현실과 마주하면서 생존 전략 차원에서 한국인과 스스로를 경계 지으면서 자신들의 생활문화와 정체성 등을 재구성하면서 균열되고 분화되면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경향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⁹⁾ 이처럼 한국 거주

5) 황혜영·천지아, “재한 중국동포의 민족 정체성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6권 3호, 2016, p. 403; 최우길, “조선족 정체성 다시 읽기: 세 차원의 의식에 관한 연구.” 『재외한인연구』 제34권, 2014, p. 96.

6) 최승현, “조선족 정체성의 다름과 선택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제80권, 2016, pp. 123-124.

7) 이해웅, “한국 이주 경험을 통해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정체성 변화.” 『여성학논집』 제22권 2호, 2005, p. 138.

8) 이주희, “중국 조선족의 한국 이주 경험과 정체성 전략: 공장 노동자와 국적회복자를 중심으로.”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p. 73.

조선족 정체성은 한국 이주 경험을 통해 중국 국민 정체성, 중국 소수민족으로 조선족 정체성, 또는 제3의 정체성 등 다층적이고 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정체성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며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조선족은 중국 국가 정체성과 한민족의 민족 정체성을 가진 재외동포 이기에 사이에 끼인 존재라고 하기보다는 한국과 중국에서 역할자로서 글로벌적 위치를 가진 존재로 볼 수 있다. 그들은 문화적응에 따라 주류사회로의 위치와 존재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연구 대부분은 국내 거주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핵심 요인이 한국 사회의 조선족에 대한 차별과 배제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은 집단 차별이 아닌 개인적인 차별이라는 점에서 조선족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집단 전체의 과정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거주 조선족의 정체성은 개인과 사회, 국가 등 다양한 관계와 맥락 및 정책 등을 통해 형성되고 변화하기 때문이다.

2. 분석틀과 연구방법

모든 개인과 집단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집단 속에서 찾고 재규정한다. 개인들은 많은 집단의 일원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정체성을 바꿀 수가 있다. 하지만 집단 정체성은 대개 기본적인 정체성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쉽게 변화하기 어렵다. 만일 어떤 특정 집단의 정체성이 변화하거나 사라진다면 그 집단은 사라질 수도 있다.¹⁰⁾

정체성은 변화의 상이성과 구별되는 동일성, 소속감, 일체감, 연속성을 포괄하는 것으로, 민족의 정체성은 혈통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공유하

9)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원, 『유동하는 코리언의 가치지향』, 서울: 선인, 2015, pp. 1-10.

10) 새뮤얼 헌팅턴 지음, 형선호 옮김, 『새뮤얼 헌팅턴의 미국』, 파주: 김영사, 2004, pp. 40-43.

고 기억해 온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민족이 문화유산 역사의식을 통해 형성된 정체성을 수용하고 내면화가 이루어지면서 민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 정체성은 단순히 혈통 중심이 아니라 문화중심의 정체성으로 타민족과 구별되는 민족개념으로 자기 인식적인 차원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¹¹⁾

또한 민족 정체성은 민족 신분에 대한 확인과정으로 기타 민족과의 교류과정에서 내적 동질성을 찾는 과정인 동시에 외적으로 이질성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초국적 이민에서 민족 정체성은 문화적응의 일부분이며 같은 집단 또는 문화에 대한 주체의 귀속감이기도 하다.¹²⁾

반면에 국가 정체성은 한 개인이 국가에 소속된다는 정체성이다.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상관관계는 국가의 정치 정체성과 관련했을 때 언제나 핵심적인 주제다. 민족 정체성이 혈연적 의미가 강하다면 국가 정체성은 정체성의 상이함을 포함하는 정치적 의미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다.¹³⁾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 간에 충돌이 없는 이중 정체성으로 발전시키기도 한다. 소수민족 집단이 이중 정체성의 형태로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을 중첩적으로 가질 수 있다. 또는 이들이 충돌을 빚으면 자신들의 문화를 지원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민족이 되기도 한다. 중층적 정체성은 때때로 서로 충돌하기도 하며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

이처럼 정체성에서 역사와 문화,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맥락으로 인해 혼란과 대립 등 다층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조선족이 한민족으로서 민족 정체성과 중국 국민으로서 지닌 국가 정체성을 정치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체제의 맥락에 접근해서 분석한다.

또한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는 국가 간의 관계 맺음 속

11) 심민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민족 정체성 교육을 위한 민족교육 모델 연구: 유대인들의 민족 정체성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제35권, 2009, pp. 63~94.

12) Phinney, J. S.,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8, No. 3, 1990, pp. 494-514.

13) 강원택,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한국정치』,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7, pp. 11-12.

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 점에서 조선족과 중국 간의 관계, 조선족과 모국 간의 관계, 그리고 모국과 거주국 간의 관계 등 삼각관계는 정체성 형성과 변화의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구체적으로 조선족과 중국 간의 관계는 소수민족정책에 접근하여 역사적인 조선족의 위치를 분석한다. 조선족과 모국 간의 관계는 거주국에서 모국의 이익 대변자나 해외 인적 자산으로 활용, 경제교류, 문화교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모국과 거주국 간의 다리를 건설하는 중개자 역할로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요인을 포함한다. 상호 관계가 가끔 긴장되고 불일치한 경우에 조선족은 부정적인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한국의 직접 이주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차별을 받아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모국과 거주국 간의 관계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대외관계도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거주국과 모국은 정치·경제적 갈등과 대외 관계에서 대립하거나 견제를 하게 되면, 외국국적동포는 불안감·불안정 및 차별을 당할 수 있다. 이처럼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는 조선족과 중국, 한국 간의 관계 변수 및 개인 변수 관계를 잘 고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관계와 정책 및 맥락에 근거한 분석 틀을 중심으로 국내 거주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 형성과 변화를 고찰할 것이다. 연구방법은 조사 대상의 특성과 의미 및 관계와 맥락의 이해를 위해 문헌연구와 심층 면접을 병행하였다. 심층 면접은 조선족 언론인을 제외하고는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자들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들 대부분은 재외동포비자(F-4)와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체류자였다. 거주 기간은 단기(3년)-장기(17년), 성별도 남녀 구분, 직업과 중국의 지역 출신지 및 연령대도 30~60대까지로 다양하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면접은 노동자, 사업인, 언론인 등 총 15명이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인용된 인터뷰는 2018년 6월 6~10일과 2019년 9월 12~15일 동안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 2동, 구로구 가리봉동, 광진구 자양4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미진한 것은 추가 전화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의 기본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1〉 인터뷰 대상자의 기본 사항

이름	성별	연령	직업	출신지	한국거주기간
김○○	남	48세	노동자	랴오닝성(선양시)	8
김○○	남	53세	사업인	지린성(옌지시)	10
김○○	남	55세	언론인	지린성(옌지시)	12
박○○	남	67세	사업인	지린성(백산시)	17
박○○	남	35세	사업인	지린성(옌지시)	7
백○○	남	58세	언론인	지린성(옌지시)	12
오○○	남	56세	사업인	헤이룽장성(밀산시)	6
우○○	여	62세	사업인	지린성(화룡시)	16
이○○	여	46세	사업인	지린성(도문시)	9
이○○	남	55세	노동자	지린성(통화시)	13
이○○	남	63세	언론인	지린성(옌지시)	15
신○○	남	45세	노동자	지린성(안도현)	10
장○○	남	57세	노동자	지린성(둔화시)	13
전○○	남	32세	사업인	헤이룽장성(하얼빈시)	3
최○○	남	53세	사업인	지린성(용정시)	11

II.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 형성과 변화

1. 조선족과 중국 관계

중국과 조선족 관계에서 정체성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1921~1949년 시기에 조선족의 정체성은 해방 전까지는 조선을 모국으로, 해방 후에 중국 국적에 가입하면서 국적과 민족개념이 중첩되는 이중적 조국을 갖는 위치로서의 입지를 보였다.

조선족은 동북지역에서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여 항일투쟁에 적극 투신하였다. 그것은 중국인으로서가 아닌 한민족의 일원으로 참가한 것이다. 특히 이 시기 조선족은 대부분이 북한을 모국으로 생각하였다. 항일 전쟁이 끝난 후에

조선인들은 그들이 처한 특수한 역사적 환경 속에서 조선인의 국적 문제는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 대부분은 조선인의 국적은 사실상 이중국적 혹은 무국적 상태에 있었다.

광복 후 조선인에게 평등 지위와 권리가 인정하고 보장되었다. 1945년 8월부터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될 때까지 중국에 잔류한 조선인 대부분은 중국 국적에 가입하였다. 1946년 중국 국적을 원하는 한인은 중화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었다. 이는 한인이 중국 국적 가입 및 중국 내의 소수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중국 내에서는 소수민족으로서 조선족으로 불리게 되면서 중국 조선족 사회가 형성되어 갔다.

이때는 중국과 모국 사이에서 이쪽도 내 조국이고 저쪽도 내 조국인 조선족의 이중적 입장과 이중적 조국 관념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이해를 했으며 이중국적을 인정하면서 중국 내의 조선족으로서의 입지를 명확히 하였다.¹⁴⁾ 이는 다중조국론으로 혈통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왔으니 한반도에 하나의 조국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사회주의 중국이라는 조국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조국 즉 국적과 민족개념의 중첩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이 다중조국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문화혁명 중 조선족 탄압의 한 구실로 작용하였다.

둘째, 1949~1958년 시기에 조선족의 정체성은 중국의 합법적인 국민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한반도의 모국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면서 중국이라는 오직 하나의 조국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결국 조선족은 자체적 민족공동체 유지와 전통문화 전승에 노력하는 동시에 현실의 수요에 의해 중국 소수민족의 일원으로서 사회주의 제도에의 적응과 사회주의 이념의 수용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다. 그 결과 조선족은 자체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체적 삶을 유지해 나갔지만 삶의 내용 및 가치 지향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¹⁵⁾

14) 김태국, 『연변조선족사회의 과거와 현재』, 서울: 고구려연구재단, 2006, pp. 137-138.

15) 허명철, “조선족공동체와 정체성의식.” 『통일인문학논총』 제52권, 2011, pp. 312-313.

조선족의 정체성 형성은 중국 공산당의 민족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¹⁶⁾ 예컨대 조선어의 통용이 권장되었는가 하면 조선족을 위한 민족학교가 증설되었고 조선어로 된 잡지 발간이 이루어졌다. 신중국의 소수민족정책으로 조선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의 지위를 보장받았다.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소수민족이 분리 독립을 주장하지 않는 한 언어, 문자, 종교, 풍속 등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보장하였다. 조선족은 중국의 민족정책으로 중국 국민이 되는 한편 민족학교를 세우고 민족교육,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조선족은 다른 소수민족과 달리 자신들이 유교적 문화 배경을 지니고 한글을 가진 문화민족이라는 점, 중국의 건국 과정에서 여느 민족 못지않게 기여했다는 점, 교육열이 높고 깨끗한 민족이라는 점 등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¹⁷⁾

셋째, 1958~1978년 시기에 조선족의 정체성은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한민족과 구별되는 중국인으로 규정되도록 강요받게 되었으며, 중국의 조선족과 한반도의 한인과 구별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국은 포기하도록 강요받았다. 심지어는 고국이라는 표현도 쓰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문화혁명(1966~1976)의 초기에 더욱 심하였고, 일체의 민족적 특색이 나타나는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였다. 특히 계급 대오 정리운동기간(1968~1969)에는 많은 조선족이 민족 문제로 인하여 희생되게 된다. 또한 민족문화도 큰 수난을 당했는데, 연변일보는 신화사전신(新華社電信)으로 개명되어 한자로 출간되었고, 연변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조선어 대신 중국어로 강의하도록 했다.¹⁸⁾

정치적인 민족주의가 봉쇄된 시점에서 문화적 민족주의도 제약을 받았다. 민족학교의 구성이나 수업내용, 교과과정 등에 대해서도 제약이 나타났다. 조선족은 이제 중화민족의 일원으로서 존재할 것을 강요받은 것이며, 이러한 실

16) 이현정,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7권 2호, 2001, pp. 63-105.

17) 고지영, “중국 조선족 정체성 변화 분석.”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3, p. 61.

18) 김옥녀, “중국정부의 소수민족정책에 관한 연구: 조선족사회를 중심으로.” 서울대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p. 91.

제적 강요는 30여 년간 지속되면서 중국의 한인을 한반도의 한인과 구별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1978-현재까지 시기로 조선족의 정체성은 중국의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 위치를 다시 갖게 되면서 회복된다. 1979년부터 덩샤오핑의 주도로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되면서 연변지역도 민족자치주의 특색을 갖게 되었다.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민족자치구역으로서 민족자치권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개혁개방은 조선족에게 큰 변혁을 가져다주었다. 조선족 소수민족지구도 급속히 변화하여, 전국적 규모의 시장경제에 편입되었다. 개혁개방으로 인한 경제구조의 변화와 그로 인한 한족 인구의 유입, 외부와의 교류 증가 등의 요인들이 조선족 소수민족의 민족 정체성까지 혼란시킬 만큼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의 조선족은 한국인 모국으로의 이주가 커다란 물결을 이루었다.

오늘날 중국의 민족정책의 핵심은 다원일체, 단기적 공존 장기적 융합이다. 다원일체는 다원성을 일부 인정하는 토대에서 일체화한다는 의미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다원을 어디까지 인정하며 다원과 일체 중에 무엇을 더 강조하는 가이다. 당연히 일체가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단기적 공존 장기적 융합은 한족과 소수민족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단기적으로는 공존하나 장기적 목표는 중화민족으로의 완전융합이라는 것이다. 중국에서 동화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그 예로 최근에 중국은 소위 신화교¹⁹⁾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조선족을 중화인민 행사에 초청하기도 한다.

중국 정부가 조선족을 중국 국민이라는 것 때문에 신화교 정책으로

19) 신화교는 1978년 중국 개혁개방 정책의 실행 이후 출현한 집단으로, 한국의 경우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유학, 결혼, 취업, 상업, 자유 직업 등의 이유로 한국으로 건너온 이른바 중국 공민을 의미한다. 반면에 구화교는 중국 개혁개방 이전에 한반도에 영구적 기반을 마련한 중국 공민이다.

통제하고 있지 않다. 조선족에 대한 신화교 정책은 존재하지만, 행사 참가는 자발적이다. 물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조선족은 신화교 귀속이라는 점에서는 거부감이 없다. 이중 정체성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간다. 중국이나 한국은 모두 조선족을 동화시키려고 한다. 그러기에 중국이 소수민족 역사와 문화 전체를 중국화하려는 것에 대해 한국인이 조선족 민족 정체성 위기의 원인이라고 하며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박○○, 남, 67세, 지린성(백산시) 출신, 사업인).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한족 중심의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동화와 통합정책이 진행되어 왔다. 이는 민족 간 평등보다는 민족 간의 우열을 토대로 한 민족 우열 차별주의적 색채가 농후하게 배어 있다. 이처럼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이 조선족 정체성에 역할과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은 한족과 기타 소수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역사적인 산물인 것이다.

2. 조선족과 모국 관계

조선족과 모국과의 관계에서 정체성은 냉전 시기에는 적대적 디아스포라로서 위치, 냉전 이후에는 차별과 배제로서 분리적 위치와 조선족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보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에 살고자 하는 정주의식이 강해지고 있지만, 한국에 귀화할 생각은 많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냉전 시기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인해 정체성도 중국 국가 정체성과 북한 중심의 민족 정체성을 가졌다. 그런 상황으로 조선족은 냉전 구도 하에서 한국인에게는 거의 잊혀진 존재였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조선족에 대한 인식은 이념적 괴리, 한국전쟁에서 민족상잔에 참여, 남북 분단 등의 영향으로 부정적 시각 일변도였다.²⁰⁾

20) 박병광,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형성과 전개: 민족동화와 융화의 변주곡에 관하여.” 『국제정치논총』, 2000, pp. 433-434.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국제적 이주는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과 1992년 한중수교를 거치면서 교류가 확장되고 두 국가 사이의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급격하게 늘어났다. 한국과 중국이 교류하면서 동북 3성에 사는 조선족에게 친척방문이나 문화교류 등의 형태로 이주할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에 따라 1980년대 말부터 많은 조선족이 한국에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조선족은 한국에서 가장 큰 이주자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1987~1992년에 조선족이 동포라는 점을 고려하여 입국·체류에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하였다. 조선족은 재외국민 여행 증명서 적용을 통해 특혜를 받고 있었고, 이로 인해 그들의 친척방문이 급증하였다. 아울러 서류 미비자로 잔류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한국 정부는 중국 조선족에 대한 인식을 친척방문자에서 불법 체류 우려 외국인으로 전환하면서 자유로운 왕래를 봉쇄하는 방침을 세웠다.

1993년 업종단체추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가 시행되었고, 조선족은 어느 외국인과 동등하게 처우 받게 되었다. 연수생 중에서 조선족 비율이 높았다. 기업이 조선족이 한국어를 한다는 점에서 선호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낮은 임금에 불만을 품고 사업체를 떠나기도 했다.

1994년 한국 정부는 방문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1995년 친·인적 초청 시 사증발급인정서를 재도입하였다. 그렇게 한 까닭은 국내 조선족 서류 미비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996년 조선족 한국 입국 사기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산업기술연수생 관련 사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 정부는 1998년 중국 정부와 사기 피해 조선족 1,000명을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통해 국내에 취업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이들은 1999~2001까지 국내에 입국하였다.

그리고 1999년 국회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정부는 친척방문자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불법 체류 우려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더불어 국회는 재외동포재단법을 제정하는 한편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재

외동포는 국민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고, 재외동포의 출입국, 체류, 국내 부동산 보유 등에 관한 권리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국내 노동시장의 잠식에 대한 우려로 인해 중국과 구소련지역의 동포는 재외동포법에서 제외되었다.

1999년에 제정된 재외동포법에 대해 2001년 11월에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정부 수립 이전 이주 동포를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정부 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어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재외동포법의 시행에서 나타나는 중국과 구소련지역 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일정 정도 상쇄하기 위해 2002년 11월에 취업관리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2004년에 재외동포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 조선족과 구소련지역의 동포들도 재외동포법에 포함되게 되었다.

2007년 3월부터 방문취업제로 조선족의 국내 유입이 다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과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고국을 쉽게 방문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그 결과, 중국과 구소련지역 동포사회에는 한국 열풍이 불게 되었고, 남한에 연고가 없는 조선족의 한국행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2009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서 조선족들이 건설과 일부 서비스업에서 내국인 국내시장을 잠식한다는 비판이 일자, 2010년부터 방문취업제는 총량제로 한정하여 신규 입국을 제한하였다.

2008년부터 법무부는 모국과 동포 간 교류 확대 및 거주국에 따른 동포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중국과 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부여를 완화하여 그들 중 단순 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대학졸업자, 법인가업대표,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 60세 이상 외국 국적 재외동포들에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확대했으며, 재외동포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그리고 재외동포와 모국의

유대강화 및 재외동포 거주국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해 영주자격(F-5)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동포들에게 영주자격 부여를 활성화했다.

이처럼 재외동포법에서 제외되었던 조선족에게 정책적 배려로 방문취업제와 재외동포 자격이 부여되었다. 현재까지는 정주기반을 마련한 시기로 외국국적 동포와 내국인의 일자리 경합을 피하는 한편, 재외동포법의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조선족의 국내 정착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렇지만 조선족은 재미동포와는 달리 곧바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지방 소재 제조업체 등에서 2년간 일하거나 기술학원에서 6개월간 등록하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야 비로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정책 운용으로 인해 조선족에게 실질적 혜택이 크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재미동포와 비교할 경우 차별을 받는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2019년 7월 2일에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포 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 동포를 포함한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가 변경되었다.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등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동포는 등록증 연장, 체류자격 변경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범죄경력확인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조선족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²¹⁾ 4단계 이상을 이수하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족은 한국 재외동포법에서 차별적 법적용은 철폐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미 해결되었다고 보기도 했다. 한국이 비자 정책에 있어 체류 관계로 민족을 차별하는 것은 거의 해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21)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 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 주관 교육프로그램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0단계는 기초과정 15시간, 1단계 초급1 과정 100시간, 2단계 초급2 과정 100시간, 3단계 중급1 과정 100시간, 4단계 중급2 과정, 5단계는 한국사회이해 교육으로 기본(50시간)과정과 심화과정(20시간)이 있다.

이제 체류에는 큰 문제가 없다. 법무부에서는 방문취업(H-2)에서 재외동포(F-4) 체류 자격변경 시 한국어 능력 시험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이 부여되는 동포 관련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방문취업(H-2) 비자는 동산 소유가 안 되지만 동포에게 노동할 권리가 주어지고 있다. 비자가 끝나면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야 하지만 괜찮다. 물론 H2가 철폐되고 F4로 통합되었으면 한다. (신○○, 남, 45세, 지린성(안도현) 출신, 노동자).

그러나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조선족은 여전히 ‘외국인력’과 ‘동포’라는 두 정체성에 갇혀 있다. 한국의 경우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재외동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2%에 달할 만큼 높은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를 위해서 외국국적동포의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정책과 재외동포 정책이 통합적으로 함께 수립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한국 거주 조선족들의 한국 지향성은 입국 초기에는 한국에 대한 동경과 기대가 매우 높았다. 한국 생활 적응기에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한국인의 조선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이거나 우호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의 인구와 정주화 경향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이한 점은 중국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 젊은 층에서 한국에서의 정주 욕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조선족은 한국에 살고자 하는 정주의식이 매우 강해졌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사람은 많지만, 조선족 젊은이 80%는 한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 조선족은 중국에다 집을 사는 경향이 있었다. 요즘에는 조선족이 한국에 집을 사고 있다. 한국에서 살기가 중국보다 더 좋기 때문이다. 초창기처럼 초청사기, 가정 파탄, 불법 체류자 문제도 거의 없어지고 있다. 특히 조선족은 중국 농촌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이 많다. 중국 농촌도 도시화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조선족의 자녀들이 중국 고향으로 귀환할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다. 귀환하더라도 일자리, 생활터전, 편리성 등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조선족 사회 붕괴 위험 또는 공동화에 대한

우려도 자연히 있게 되는 것이다. (박○○, 남, 35세, 지린성(엔지시) 출신, 사업인).

조선족이 한국에 살고자 하는 정주의식 증가는 한국 정부의 조선족에 대한 포용정책에 의한 것이다. 조선족은 한국 정부가 실시하는 조선족에 대한 재외동포 정책이나 이민정책에 대한 만족하고 있다. 요즘은 국적취득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심지어 재외동포도 자동등록을 하면 공항을 한국인처럼 통과할 수 있다. 인천공항에서 조선족도 외국인 취급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조선족은 한국 정부의 출입국 정책 중에서 자유 왕래, 비자 제한 철폐 등 차별의 상당 부분이 해소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조선족의 한국 귀화자는 감소 추세에 있는 상태다.²²⁾

개인적으로 한국 국적취득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 정부의 포용정책 때문이다. 조선족은 상당수가 체류 갱신만 하면 영구 거주가 가능한 영주권 수준의 재외동포비자(F-4)와 실제 영주권(F-5) 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방문취업(H-2)비자도 번거롭긴 하지만 체류 연장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H-2의 경우는 제3국을 다녀오면 된다. 굳이 국적을 한국 국적으로 바꾸어 글로벌 활동을 협소하게 할 필요는 없다. 재외동포 비자 정책은 거의 이중국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남, 55세, 지린성(통화시) 출신, 노동자).

22) 중국(조선족 포함)으로부터 귀화자는 2013년 5,380명, 2014년 6,650명, 2015년 6,477명, 2016년 5,126명, 2017년 4,781명, 2018년 4,838명이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12월호.” 2019, p. 31). 특히 2020년 한국 정부가 귀화자 병역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귀화자와 내국인과의 병역 형평성, 국민으로 온전한 권리행사, 귀화자의 책임 의식 제고 등을 고려한 조치다. 그동안 귀화자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남자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 또한 병역법에 따라 37세 이하 귀화자는 보충역 또는 전시간로역에 편입할 수 있었다. 즉, 귀화자는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현재 35세 이하 귀화자는 연간 1천 명 수준으로, 조선족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김규근 외, “국방부, 귀화자 병역의무 내년 입법 추진.” 『연합뉴스』 2019년 11월 6일). 앞으로 귀화자 병역 의무화가 조선족 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3. 한국과 중국 관계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다양한 국가 관계의 영역에서 양적, 질적으로 크게 발전해 왔다. 여기에는 가까운 지리적 위치, 근대에서의 공동한 역사적 경험, 문화의 근접성, 서로 상호보완적 경제구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지만 조선족이라고 하는 특수한 존재가 커다란 역할을 발휘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조선족은 한중관계에서 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간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은 상호 협력하거나 갈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한중수교 후 급상승세를 타고 있고, 현재는 미국을 초월해 제1위 수출대상국이 되고 있다. 2018년 중국 통계를 기준으로 양국 교역 규모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3천억 달러(약 336조 원)를 넘어섰다.²³⁾

그러나 2016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중국의 보복이 이어지면서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미국 사드 방어 시스템은 남한과 중국 사이의 뜨거운 외교적 문제였다. 해당 분쟁으로 인해 양국 간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156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과 한국의 중국 감정 악화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설문 조사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중국에 대한 호감은 24.1%에서 15%로 떨어졌다. 2017년 대중 호감도는 33.5%에 달하던 바 있다.²⁴⁾

문제는 또 있다.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이다. 한미관계의 발전이 한중관계를 저해하거나 악화시켜서는 안된다. 이로 인해 중국과 한국의 대립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 한국은 현실상 미중과의 협력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한중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의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중이 지역협력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협력하는 것이 최상이다. 그 예로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

23) 양평섭, "2019년 한-중 경제협력 전망." 『한겨레신문』 2019년 2월 6일.

24) 김지나, "한중간에 사드 갈등이 또 한 차례 폭발할지도 모른다." 『다른백년』, 2019년 3월 27일.

원만이 아닌 일반 국민 간의 교류와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중국 공공외교의 강화가 중요하다.

조선족은 한중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국과 경제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도록 중개자 역할을 한 것도 중국 조선족이다. 많은 조선족은 많은 인맥과 인적자원을 포함한 풍부한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으며 한중 경제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 남, 53세, 지린성(용정시) 출신, 사업인).

또한 남북통일 과정에서 조선족의 역할도 필요하다.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대립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리고 조선족은 과거에는 북한과 오늘날의 새로운 상황에서는 남한과 더 많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 모두와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 온 조선족은 남북한 주민들 간 소통을 위한 매개자로서 남북통일 과정에서 조선족이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조선족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한국인과 조선족 간의 차별과 배제라는 갈등 구조를 없애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민족애를 향유할 수 있는 관계를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Ⅲ. 국내 거주 조선족의 정체성 분석

1. 정치적 맥락

조선족은 한민족, 중국인, 중국 조선족이기도 하다. 조선족이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조건은 혈통, 언어와 문화 및 전통 등이다. 조선족이 중국 국민이라는 조건으로는 중국 국적과 중국에서 태어나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 조선족이라는 중요한 조건으로는 모국과 거주국 사이의 가교 역할로 기능적 측면 등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조선족의 조국은 매우 모호해지게 마련이다. 과연 조국의 개념이 국적 측면의 조국인지, 아니면 조상의 조국인지 이다. 현재 조선족에게 중국은 조국, 한국은 모국 또는 고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²⁵⁾ 국내 거주 조선족에게도 조국은 중국이다. 그동안 중국이 조선족을 성장시켰고 오늘 날까지 존재하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족이 보인 정체성은 중국 국민이면서 한민족 일원인 이중 정체성이다.

조선족은 항일투쟁 과정을 거쳐 1952년에 정치적으로 중국에 귀속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족은 중국 국가 정체성을 갖게 것이다. 조선족의 이중 정체성은 자연적인 것이다. 그러기에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하는 조국관에 대한 것은 선택의 문제로 개별적인 문제다. 개인들이 편리와 이익에 따라 선택해 가고 있다. 앞으로 확실하게 이중 정체성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한국인은 조선족에게 민족 동화를 원하지만, 조선족은 그런 동화를 원치 않는 사람이 많다. (우○○, 여, 62세, 지린성(화룡시) 출신, 사업인)

이처럼 조선족은 다민족 통일국가인 중국에서 정치적으로는 중국 국적을 가

25) 김광희, “또 하나의 한국전쟁: 만주 조선인의 조국과 전쟁에 대한 서평.” 『한국학연구』 제27권, 2012, pp. 441-444.

진 중국인이지만, 혈통적으로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중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한다. 즉, 한국인의 단일 민족관과 조선족의 이중 정체성의 심리적 차이가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다.

한국인은 조선족에게 한국인, 중국인, 중국 소수민족 조선족인지 자꾸 물어본다. 한국인의 이런 답변 요구에도 조선족은 크게 민족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들은 한민족 혈통이기에 한민족 정체성과 중국 국민으로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조선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이 조선족에게 당신들은 한민족 정체성보다 중국 정체성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인이 조선족을 비하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족은 한반도가 할아버지의 고향과 조국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조선족은 모국사회에 애착은 있으나 중국의 조선족이기에 정치적 이유로 민족 정체성 표현을 못 하는 사회적 제약이 있다. 이것은 개인에 따라 달랐다.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다. 조선족에게는 겉으로 표출되지 않는 민족심이 있고 그 속엔 한민족의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사람 중에는 중국에서 과학자, 기술자, 군 장교, 정치인 등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조선족의 폐쇄성, 이중성, 소통과 교류에 지장 등 부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강대국 위치가 되면서 조선족이 더욱더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중국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하며 조선족에게도 이로울 것이 될 것이다. (장○○, 남, 57세, 지린성(돈화시) 출신, 노동자).

중국이 강대국이 되면서 조선족의 위치가 움직일 수 있다. 중국이 G-2 국가라는 것이 조선족 국적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구조상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중국이 강대국과 패권 국가로 성장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 형

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 거주 조선족의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차별문제에 대한 시각은 그동안 알려졌던 것과는 다른 점을 보였다. 국내 거주 조선족의 정체성 변화의 요인을 단지 차별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다.

국내 거주 조선족의 한국 사회에서의 차별과 배제 문제는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다. 인격을 무시하고 돈을 적게 지급하는 것들은 이전과 비교하여 보면 많이 시정되었다. 한국인의 조선족 차별은 있지만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 차원의 포용정책과 정부의 통합 노력에 따른 결과이다. 이제는 비자 문제가 거의 해결되어 자유 왕래 실현, 업종 선택도 가능하게 되었다. 문제는 한국 언론의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보도행태다. 한국 언론 미디어가 조선족에 대한 혐오콘텐츠 생산과 유포를 하면서 차별과 배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조선족에 대한 편견과 오해, 언론의 가짜 뉴스, 영상과 영화를 통한 비하와 무시가 우리를 모여 살게 만들고 고립시키고 있다(오○○, 남, 56세, 헤이룽장성(밀산시) 출신, 사업인).

실제로 국내 언론에 나타난 조선족 관련 보도 중에서 범죄와 관련한 기사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미디어에 의해 편견이 확산되고 공고화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그러나 중국(조선족 포함)의 경우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의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²⁶⁾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조선족의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차별과 배제 문제에 대항하며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 2019년 9월 7일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조선족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 사회의 만연한 혐오가 자신들의 인격과 생존,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26) 2016년 기준 내국인과 비교해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검거 인원 지수는 몽골이 4,052명으로 전체 외국인 평균치인 1,735명보다 2배를 훨씬 넘었고, 그 다음으로 키르기스스탄 3,219명, 우즈베키스탄 2,790명, 태국 2,758명, 파키스탄 2,515명, 러시아 2,189명, 그리고 중국(조선족 포함)은 1,923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 16개국 가운데 7번째로 중위 수준이었다. 내국인 검거 인원 지수는 3,495명이었다. 국내 인구대비로 보면 중국인보다 한국인 범죄자가 훨씬 많았다(박준휘 외, 『한국의 범죄 현상과 형사정책』,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2018, pp. 186~188).

기본적인 존엄마저 무시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등 조속한 법적 정비를 촉구하기도 했다.²⁷⁾ 이제는 민족 차별이 아닌 사회를 살아가면서 존재하는 인권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은 초창기 이주 경험에 있어 차별과 배제는 한국 사회에 거주하면서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인권 차원이나 경제적 차원, 그리고 체류비자, 영주귀국, 국적취득, 납세 등 법적·제도적 정책 차원에서 조선족이 특별하게 심한 차별과 배제, 불평등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국적취득이 엄격해진 부분은 존재한다. 더불어 한국의 일상생활에서는 조선족이 조선족 사투리 등으로 인해 차별과 배제를 받고 있다(오○○, 남, 56세, 지린성(엔지) 출신, 사업인).

그동안 한국의 차별과 배제가 국내 거주 조선족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민족 정체성을 중국, 조선족 정체성으로 변경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조선족은 상황과 이익에 따라 한국인, 중국인, 조선족이라는 전략 정체성을 갖는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조선족 인터뷰에서는 차별에 대해 다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차별과 배제가 개인 정체성 형성에 변화를 가져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차원의 차별문제와 한민족 정체성을 연결하여 조선족 집단 대다수 의견으로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국 사회가 조선족의 차별문제를 민족 집단 문제로 보다는 인권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차별의 문제는 조선족이나 한국인 모두에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선족에게 자본주의 한국은 돈 벌기가 매우 편한 곳이다. 중국 어디서 3D업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일하기 쉬운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한국 물가는 급격히 상승하는 중국 물가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한국은 살기가 너무 좋다(김○○, 남, 53세, 지린성(엔지) 출신, 사업인).

27) 조성은, “중국동포 혐오차별 철폐 범민족 통일대회 열려.” 『프레시안』 2019년 9월 9일.

실제로 조선족은 다양한 차원의 차별과 배제, 불평등한 제도와 정책으로 인해 자신이 가진 한민족 정체성을 왜곡하거나 변화 또는 거부하고 싶은 경우는 별로 없었다. 조선족은 중국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미 한민족 정체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족이 한민족 정체성을 가지지 않겠다며 정체성을 왜곡하거나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조선족의 출신, 학력, 문화 정도, 지역 특성 등을 통해서다. 여기에서 조선족의 개인적 차원에서 한국 생활에서의 억압이나 피해에 따라 인간의 감정적인 것으로 인한 한국인에 대한 증오감으로 정체성을 거부하는 것은 어디서나 가능한 것이다(백○○, 남, 58세, 지린성(엔지시) 출신, 언론인).

또한 차별과 배제는 정치 문화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현재 한국으로 이동한 재한 조선족과 단체들은 같은 민족이라는 동포 담론으로 사회적인 차별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행동도 자유스럽다. 인간관계도 평등하다. 그러나 한국 정치 문화가 문제다. 집단 간의 이기주의는 차별문제를 어렵게 한다. 중요한 것은 한국인이 배타적인 문화 속에서 조선족 집단 및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인정이 대화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조선족에게 역사 탐방이나 교육 등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인다.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 문제는 정체성 교육을 통해서 정체성 보안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이○○, 남, 63세, 지린성(엔지시) 출신, 언론인).

2. 문화적 맥락

조선족은 한민족 정체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 언어, 전통, 생활문화, 종교, 민족 등 문화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라고 보기도 한다. 인종과 문

확적으로 한민족이면 한민족 정체성을 가졌다고 조건 없이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류 문화, 대중문화, 자본주의와 대량 소비문화 등도 조선족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조선족은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여건 등에서 상이한 생활문화의 격차를 경험해 오고 있다. 조선족과 한국인 관계에서 문화적 이질성으로 어려운 점은 외래어 때문이다. 다른 문화적 갈등은 별로 없었다.

그리고 계층, 지역, 세대 등에서도 정체성 차이가 나고 있다. 서울에서만 보더라도 자양동과 다른 지역 간(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동 등)의 차이다. 예를 들면, 자양동은 양꼬치 거리를 조성하여 식당을 경영하는 등 개인 사업자들이 집중해 있고 다른 지역은 노동자들이 집거하고 있다.

특히 국내 거주 조선족 가운데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초에 조선족의 이주가 시작될 무렵에는 주로 단순노무직에 종사했고, 이에 따라 한국인 사이에 조선족은 단순노무직 종사자라는 인식이 형성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국내의 조선족이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조선족은 점차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더 나은 직업, 자신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²⁸⁾

그리고 조선족 자녀들은 한국 생활에서 대부분 부모의 직장생활로 적응 및 언어에 문제가 많은 편이다. 어린 나이에 한국에 오거나, 아예 한국에서 태어난 4세대는 한국 사회에 쉽게 적응했다. 학교에서는 한국 아이들과 다를 바 없다. 정작 부모들은 아이들이 중국어를 할 줄 모른다면 걱정스러워한다. 이중언어를 경쟁력으로 삼았던 3세대와 달리 한국에서 한국 교육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어가 낯설 수밖에 없다. 귀화를 원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²⁹⁾

반면에 중국에서 미적응, 한국 입국 후 한국에서도 미적응 상태의 자녀들이

28) 오정은 외, 『국내체류 중국동포 현황 조사』, 서울: 재외동포재단, 2016, pp. 82-83.

29) 김동인, “대림.” 『시사인』 2018년 12월 2일~2019년 1월 2일.

많다. 자녀가 중도입국 학생이라면 이중 언어, 문화체험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는 있다. 개별 학원도 다니기도 하지만 어려움이 많다. 특히 차세대 민족교육을 위한 모국사회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조선족 젊은 층에서는 혈통민족 중심의 정치적 정체성에서 문화적 정체성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종 혼종성 정도도 빈번하고 글로벌화로 민족 문제도 희석화되고 있다. 같은 민족끼리만 결혼해야 한다는 윤리관이 크게 변하고 있으며 타민족과의 통혼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도 크게 늘고 있다.

조선족, 중국인, 한국인 등 민족이나 인종, 정체성 문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경제적인 성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한국어와 중국어도 잘하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중국문화와 한국 문화 혼종성은 당연한 것이며 이것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전○○, 남, 32세, 헤이룽장성(하얼빈시) 출신, 사업인).

그리고 나이 든 세대(1~2, 부모세대)와 젊은 세대(3~5, 차세대)가 가치관 차이가 있다. 젊은 세대(3~5, 차세대)의 한국에서의 재사회화 과정(사회적응)에서 주로 직업 차이, 사회적 지위 등에서 정체성 형성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한국에 진출한 조선족 1~2세대에 비해 3~4세대로 갈수록 경제 수준이 높아져 삶의 질이나 교육문제에도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3세대들은 이미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뚜렷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한국의 최고 학부를 비롯한 여러 대학과 유수의 대기업들에서 교직에 종사하거나 뛰어난 역량을 과시하고 있기도 하다.

오늘날 3~5세대(차세대)의 조국관은 철저하게 이중 정체성 경향을 보인다. 차세대의 조국관 선택에서 중국 미래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진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3. 이데올로기적 체제 맥락

역사적으로 조선족은 한국전쟁에서 조선족 북한 지원군으로 참여했다. 중국 인민지원군은 최전선에서 전투에 임하여 패망 직전의 북한을 지원하였다. 이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1958년까지 북한에 주둔하면서 북한의 전후복구사업을 도왔다. 정전 후 중국 인민지원군의 노동력 지원은 북한의 전후복구 과정을 지탱하는 핵심 중 하나였다.³⁰⁾ 해방 직후 한반도에 대한 조국애를 지니고 있었던 재중 조선인들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 인민지원군이 전황을 유리하게 바꿔놓으면서 점차 중국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³¹⁾

최근에는 조선족이 집단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이주해 와서 자본주의 문화와 접촉한다고 해서 그들의 문화적, 혹은 민족적 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선족이 한국에서 자본주의에 적응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자본의 생리를 잘 모르며, 시장경제에 녹아드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비스업, 건설업 등 직업 선택에도 문제가 많다. 물론 이미 중국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특색을 많이 도입한 상태이지만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족이 한국에서 차별과 배제는 자본주의에 대해 적응하지 못한 데서 일부 비롯되었다는 점도 있다. 한국은 조선족의 약한 민족 정체성이나 이중 정체성으로 인해 조선족을 부정적 시각이나 디아스포라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는 조선족이 사회주의 체제에 살다가 왔다는 점을 민족 정체성을 연관시키고 있다. 또한 이데올로기 문제에서는 오히려 한국인이 무척 강하다는 것이다.

가장 큰 쟁점으로 조선족이 고려인이나 북미 한인과는 다른 이중 정체성의 변화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그 예로는 사회주의 국가 체제, 폐쇄적이며 통제사회 영향. 체제 구조상 중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처지, 대국 중국이라

30) 문미라, “한국전쟁 시기 중국인민지원군-연변 조선인 사회의 후방지원 활동과 북중 혈맹관계의 강화.” 『동북아역사논총』 제57권, 2017, p. 253.

31) 김광희, “또 하나의 한국전쟁: 만주 조선인의 조국과 전쟁에 대한 서평.” 『한국학연구』 제27권, 2012, p. 439.

는 요인, 사회주의 교육, 전략적인 이중 정체성 유지 등이다.

당연히 중국의 폐쇄적이며 통제사회가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더불어 조선족이 고려인이나 북미 한인과는 다른 이중 정체성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로는 생활양식의 다양화, 이질화, 태도나 국내에서의 적응 양상에서다. 하지만 민족 정체성에 대한 영향으로는 이런 것들 보다는 한국 정치 문화의 영향이 크며, 오히려 사회주의 체제 경험의 부정적인 측면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소수민족 정책을 통해 민족학교, 방송국, 대학, 신문과 언론 매체를 구축하였으며 국가적으로 소수민족 교사들을 배양하였다. 이점은 고려인이나 북미 한인들도 거주국으로부터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조선족 사회와 타 외국국적동포와는 제도적으로 또는 상황적으로 다르다. 비판은 가능하지만, 사회주의 체제가 민족 정체성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 않는다(김○○, 남, 55세, 지린성(옌지시) 출신, 언론인).

또한 한국인은 조선족이 중국 사회주의 교육 등으로 인해 자유 민주주의 가치 의식이 부족하며 타 외국국적동포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인이 갖는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사회주의 교육과 연관 짓기도 하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최고의 발전 단계까지 왔다고 볼 수 있다. 조선족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 점에서 상당히 부족했다. 이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제도가 만들어 놓은 차이를 겪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족의 한국에서의 부정적 이미지를 사회주의 교육이라는 잣대로만 조선족을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조선족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감정적 요소가 많이 개입 돼서 조선족을 냉정한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이○○, 여, 46세, 지린성(도문시) 출신, 사업인).

그리고 조선족은 한국인이나 한국 거리 두기(거리감)를 한다고 비판을 받는

다. 그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거리감의 대표적인 것이 조선족 집거지 형성이다. 한국에 중국인 동포 집거지 형성에 대해 한국인과 분리, 계도화 또는 동포타운, 중국 차이나타운을 조성한다며 비판이 많다. 이는 한국에서 조선족 집단거주가 한민족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비판이다. 귀화한 조선족은 차이나타운 개발이 아닌 한국화를 원한다. 특히 자본을 축적한 중산층일수록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희망한다.

반면에 조선족은 중국의 집단거주지에서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한국 이주 이후에도 집단거주지 형성을 통해 자신의 문화 유지가 가능하게 되면서 생활만족도가 제고되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거리감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

거리감은 실제로 의식적인 것보다는 생활적인 면에서 어쩔 수가 없다. 일이 끝나면 자연적으로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 한국의 명절이나 행사에 조선족은 거의 없다. 반대로 조선족 행사에는 한국인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인과 조선족이 소통과 화합이 잘되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한국인과 분리되어 살아가게 된다(김○○, 남, 48세, 랴오닝성(선양시) 출신, 노동자).

IV. 결론

지금까지 국내 거주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 형성과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 거주 조선족의 정체성은 개인과 사회, 국가 등 다양한 관계와 맥락 및 정책 등을 통해 인식되고 형성되고 있다. 사실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차이를 드러내게 하는 것으로 정체성 형성과 변화의 핵심은 차별과 배제보다는 혈통과 국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관계와 맥락 및 정책 등도 매우 중요한 변수다.

국내 거주 조선족이 보인 정체성은 정치적 맥락에서는 이중 정체성이다. 한국인은 조선족에게 민족 동화를 원하지만, 조선족은 그런 동화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국내 거주 조선족의 한국 사회에서의 차별과 배제 문제는 이전과 비교하여 보면 많이 좋아졌다. 그것은 한국 정부 차원의 포용정책과 정부의 통합 노력에 따른 결과다. 조선족은 한국에 살고자 하는 정주의식이 매우 강해졌다.

문화적 맥락에서는 조선족 젊은 층은 혈통민족 등의 정치적 정체성에서 문화적 정체성으로 변화하고 있다. 조선족은 계층, 지역, 세대 등에서도 정체성 차이를 보였다.

이데올로기 체제 맥락에서는 조선족이 고려인이나 북미 한인과는 다른 이중 정체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도적으로 상황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족 정체성은 한국 정치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사회주의 체제가 민족 정체성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관계에 따른 조선족의 정체성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이 조선족 정체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법에서 재외동포 범위 확장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은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와 동포라는 두 정체성에 갇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정책과 민족통합의 재외동포 정책이 통합적으로 수립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 문제는 정체성 교육을 통해서 정체성 보안을 해나가고, 동시에 제도적으로 재외동포 비자(F-4)나 방문취업 비자(H-2)를 획득하는 과정에서도 필요 수준의 요건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결국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 이데올로기, 정치·경제적이며 사회·문화적인 측면보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행태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정체성 형성과 변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조선족은 한국 사회에서의 차별문제를 집단 차원의 정체성 접근이 아닌 개별 인권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선족이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서 우리와는 다른 차이와 다양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는 그들의 이런 다름을 수용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새로운 관계의 인식틀을 만들어 가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강원택,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한국정치』,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7.
- 고지영, “중국 조선족 정체성 변화 분석.” 전남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원, 『유동하는 코리안의 가치지향』, 서울: 선인, 2015.
- 김광희, “또 하나의 한국전쟁: 만주 조선인의 조국과 전쟁에 대한 서평.” 『한국학연구』 제27권, 2012.
- 김귀근 외, “국방부, 귀화자 병역의무 내년 입법 추진.” 『연합뉴스』 2019년 11월 6일.
- 김동인, “대림.” 『시사인』 2018년 12월 2일-2019년 1월 2일.
- 김매화, “중국동포의 이중 정체성에 관한 비교 연구: 다문화국가,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인하대 다문화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 김옥녀, “중국정부의 소수민족정책에 관한 연구: 조선족사회를 중심으로.” 서울대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지나, “한중간에 사드 갈등이 또 한 차례 폭발할지도 모른다.” 『다른백년』 2019년 3월 27일.
- 김태국, 『연변조선족사회의 과거와 현재』, 서울: 고구려연구재단, 2006.
- 문미라, “한국전쟁 시기 중국인민지원군-연변 조선인 사회의 후방지원 활동과 복중 혈맹관계의 강화.” 『동북아역사논총』 제57권, 2017.
- 박경화·박금혜, “민족과 국민 사이: 조선족의 초국가적 이동과 민족 정체성의 갈등.” 『한국학연구』 제39권, 2015.
- 박병광,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형성과 전개: 민족동화와 융화의 변주곡에 관하여.” 『국제정치논총』, 2000.
- 박준휘 외, 『한국의 범죄 현상과 형사정책』,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2018.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12월호.” 2019.
- _____,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년 8월호.” 2019.
- 새뮤얼 헌팅턴 지음, 형선호 옮김, 『새뮤얼 헌팅턴의 미국』, 파주: 김영사, 2004.
- 양평섭, “2019년 한-중 경제협력 전망.” 『한겨레』 2019년 2월 6일.
- 오정은 외, 『국내체류 중국동포 현황 조사』, 서울: 재외동포재단, 2016.
- 이미화, “한국 거주 조선족의 가치지향성과 정주의식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2017.
- 이주희, “중국 조선족의 한국 이주 경험과 정체성 전략 : 공장 노동자와 국적회복자를 중심으로.”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 이혜용, “한국 이주 경험을 통해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정체성 변화.” 『여성학논집』 제22권 2호, 2005.
- 이현정,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7권 2호, 2001.
- 최수현, “조선족 정체성의 다름과 선택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제80권, 2016.

- 최우길, “조선족 정체성 다시 읽기: 세 차원의 의식에 관한 연구.” 『재외한인연구』 제34권, 2014.
- 황해영·천지아, “재한 중국동포의 민족 정체성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 미디어논문지』 제6권 3호, 2016.
- 허명철, “조선족공동체와 정체 의식.” 『통일인문학논총』 제52권, 2011.
- Phinney, J. S.,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8, No. 3, 1990.
- 조성은, “중국동포 혐오차별 철폐 범민족 통일대회 열려.” 『프레시안』 2019년 9월 9일.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Change of Ethnic Identity and National Identity of Korean Chinese Living in Korea

Youngsool Kim(Research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on the formation and change of ethnic identity and national identity of Korean Chinese living in Korea. For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ethnic and national identity of Korean Chinese by approaching the context of political, cultural and ideological system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the Korean Chinese, and Korea affects identity change.

The identity of Korean Chinese in Korea is recognized and formed through various relationships, contexts, and policies, including individuals, societies, and nations. The identity of Korean Chinese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is different from time to time.

As a result, the negative image of Korean Chinese is more responsible for the media's reporting behavior than the national ideology of the socialist system,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aspects. Therefore, Korean society needs to work with the Korean Chinese to create a framework for recognizing new relations with a long-term perspective, because Korean Chinese show differences and diversity in the process of forming and changing identity.

Key Words: Korean Chinese(Joseon-jok), Foreign National Korean, Ethnic Identity, National Identity, Discrimination

투고일: 2019년 11월 12일, 심사일: 2019년 12월 4일, 게재 확정일: 2019년 12월 26일